

국민화합 기원하는 알록달록 국화 만발

삼광사 희망나눔 국화문화축제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국화가 삼광사 도량을 가득 채웠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희망은 UP, 행복은 Together'를 주제로 11월 15일까지 부산시민을 위한 '제2회 국민화합 희망나눔 국화문화축제'를 경내에서 개최한다. 삼광사는 축제기간 동안 1만여 국화화분을 이용해 다양한 조형물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삼광사는 10월 1일 주지 세운 스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축제 개막 테이프 커팅〈사진〉을 진행하고 국화로 장엄된 도량을 시민들에게 활짝 개방했다. 또,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화합 어울림한마당'도 개최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생명나눔 희망의 길을 걷다

제10회 희망세상 걷기대회

1,2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생명을 위한 희망 나눔에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0월 3일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제10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본부장 원범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휠체어 전달식 및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휠체어는 보훈병원 및 부산의료원 등에 총 6대를 전달했으며 환자 및 가족들도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생명나눔 활동의 의미를 전달했다. 걷기대회 후 특별무대에서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원범 스님은 "환우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이렇게 화창한 날 모두가 동참해 함께 걷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행사에는 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자인 스님, 이사 성문 스님, 이승표 前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주인공 에너지로 행복한 부모 돼요"

한마음과학원, 9월 한 달간 부모교육 프로젝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제가 부모님에게 듣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였어요.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끝내 못 듣고 서러운 어린 제가 울고 있는 게 보여요."

테이블마다 조별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들은 한마음과학원의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 프로젝트에 참가한 부모들이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눈물이 흐른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왜 이렇게 마음 같지 않을까?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5회에 걸쳐 부모교육 프로젝트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좋은 부모이기 이전의 자신을 바로 보라는 주문을 먼저 받았다. △괜찮아(공감하고 위로하기) △다그치지 말아요(부모와의 관계&자녀와의 관계) △평가하지 말아요(나에 대한 이해) △쉼(고정관념과 쉼에 대해서) △우리, 안아줘요(자녀와의 지혜로운 소통) 등 각 주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면서도 출발점은 언제나 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에 있었다.

9월 8일,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만난 어린 아이는 울고 있었다. 너무 아파서 외면해왔던 내 안의 나를 비로소 대면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의 상처를 보듬고자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따뜻하게 공감하고 서로를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내 안의 나를 이해하고 내 아이를 안아줄 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내 방식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상처가 보이니 지금 아이에게 주고 있는 상처도 보인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이야. 너를 사랑해."하고 자주 말하리라는 다짐이 새롭게 선다.

주인공, 행복한 부모 되는 힘
대물림 훈육 벗어나 자유로운
새로운 자각 훈련 실생활 적용

그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온 습관을 마음의 용광로인 주인공에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이 연습 과정들은 한마음과학원에서 편집한 교재에 기록한다. 그 교재는 노트식으로 대행 스님의 법어 '마음으로 다스리는 글'과 함께 스님의 법문이 구체화돼 부모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돕는다. 또, 교재 속에는 안아주기, 심부름, 원하는 요리 해주기 등 사랑쿠폰이 담겨 실천의 즐거움을 높였다. 쿠폰을 받아든 아이나 남편, 아내는 쿠폰을 사용하며 가족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행복을 나눴다.

마지막 강의에서 부모들은 모두 소감을 전하며 "한 달 동안 새로운 변화를 맛보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공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수현 씨는 "그동안 첫째보다 둘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안아주기를 실천하며 큰 딸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은 9월 한 달 동안 부모교육프로젝트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좋은 부모이기 이전의 자신을 바로 보라는 주문을 먼저 받았다.

김인정 씨는 "사실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더욱 공부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며 공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을 위한 스님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혜찬 스님은 "알아차림, 자각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가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한마음에너지로 둘 아니게 소통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며 "아울러 부모가 자기 존재의 뿌리인 한마음 자리에서 일체를 들이고 내는 수행으로 당당한 삶을 이끌어 갈 때, 아이의 가는 길도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1996년 설립됐다. 마음의 원리가 물질로 나투는 도리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증명해 보이는 심성 과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설파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 연구, 교육, 사회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는 한마음과학원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밖에도 한마음공생실천, 아버지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꽃무릇 아래 사찰-마을 '지역상생'

고창 선운사, 9월 29~30일 보은염 이운 등 선운문화제

붉은 꽃무릇이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 온 산하가 붉게 물든 고창 선운사에서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9~30일 선운사 일원에서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선운문화제는 꽃무릇 시화전 및 시상식, 역대 조사 스님들에 대한 헌다례, 석씨원류 경판이운식, 보은염 이운식,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앞서 만세루에서 열린 꽃무릇 시화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선운문화제는 부도전에서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공덕을 기리며 차를 공양하는 헌다례가 진행됐다. 도량에서는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석씨원류 경판을 머리에 이고 화엄법계도를 따라 도는 경판이운식이 재연돼 장관을 연출했다.

또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 2가마니를 공양한 '보은염 이운식'도 열렸다.

초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선운사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전통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가수 한아름이 주옥같은 가을 음악을 불렀고, 퓨전국악 밴드 하나연은 국악과 팝의 앙상블을 연출했다. 또 재즈 탭댄스 공연, 뮤지컬 갈라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말로밴드가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밤을 재즈의 향연으로 이끌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만세루 앞에서 스트릿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투호체험,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 체험과 국악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찰VR체험, 전통문양 그리기, 단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문화제에 참가한 스님과 불자들이 석씨원류 경판이운식을 하고 있다.

화엄사 문중 아우른 두 스승의 삶

구례 화엄사, 도강 · 도천 스님 유품전시회

현대 화엄사의 두 기둥이었던 도강(1922~1984) · 도천(1910~2011) 스님을 추억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성보박물관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도광, 도천 대종사 유품 전시 특별전'을 개최하고 두 스님의 가사를 비롯한 수행도구와 생활용품 등 100여 점의 유품을 전시한다.

2일에는 명선 스님(화엄사 문장)과 덕문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재와 특별전 개막식, 부도 헌다례가 진행됐다.

전시회는 두 스님의 수행 생활을 볼 수 있는 가사와 발우, 금강경, 법어집을 비롯해 도자기, 시계, 북, 징, 도장, 염주 등 생활용품이 전시됐다. 특히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창간호, 화엄사본말사법(1927년),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법(1941), 사진 등 종단관련 중요서류도 함께 전시한다.

평생 도반으로 수행했던 도강, 도천 스님은 "상좌를 받더라도 누구 상좌 할 거 없이 같은 문도로 살자"는 화합의 정신을 후학들에게도 강조해 화엄사에서는 두 스님의 유지를 받아 함께 추모재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도광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도천 스님과 함께 담양 보광선원을 창건하고 백양사, 범어사, 화엄사, 해인사 주지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84년 세수 63세, 법랍 47세로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이자 화엄사 조실을 지낸 도천 스님은 2004년 해인사에서 종단의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를 받았으며, 2011년 충남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법랍 73세, 세납 101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시회에서 도강 · 도천 스님의 사진과 유품을 돌아보는 화엄사 스님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14 전화 02)919-0211 팩스 02)919-0216
www.bongguk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사부대중일동
종무소 033)462-6969 템플스테이 연수원 033)462-5565,5035
www.baekdamsa.org | baekdamsa.templestay.com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